
 <b>인천광역시</b>		<b>보 도 자 료</b>		
		배포일자	2022년 7월 21일(목) 총 7매	
담당 부서	산업진흥과	담 당 자	• 벤처·소부장팀장 조동주 ☎440-4296 • 담당자 김영준 ☎440-4298 • 담당자 김미현 ☎440-3075	
	대변인실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의 내일, 뿌리산업에서 답을 찾다**  
 - 인천시, 뿌리산업 육성 통해 지역산업 발전 견인 -  
 - 뿌리기업 고용안전 지원·소부장 기업 역량강화·희소금속 고순도화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가 원자재 가격 급등·금리인상·인력난 심화 등 3중고로 위기를 겪고 있는 뿌리산업의 육성·지원 사업을 가속화한다.

뿌리경제가 튼튼할 수 있도록 제조업 기반의 중소기업에 지속적인 밑거름을 줘 지역경제를 견인하겠다는 방침으로, 인천의 미래 경제를 견인할 원동력을 뿌리산업에서 찾겠다는 전략이다.

제조 산업은 한국의 뿌리산업인 동시에 인천의 뿌리산업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도시와 대단위 택지 개발로 아파트가 늘면서 제조업 공장은 설자리를 잃었고 공장부지 임대료의 가파른 상승은 기업들의 탈(脫) 인천을 부추겼다. 코로나19 상태도 뿌리산업의 침체를 가속화했다.

2020년 말 기준 인천지역 뿌리산업 기업은 3,227개로 전국 3만553개 중 10.6%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은 13조 5,958억 원으로 전체 뿌리기업의 8.9%를 차지하고 있다.

인천지역 뿌리기업의 매출규모는 50억 미만이 86.6%를 차지하고 있으며 5억~10억 미만인 영세업체가 13.3%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천 뿌리 기업의 성장정체와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천시 뿌리산업 매출액 규모별 사업체 수  
 (단위 : 개사, %)

구 분	합계	5억 미만	5억~10억 미만	10억~50억 미만	50억~100억 미만	100억~300억 미만	300억~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전국	사업체 수 30,553	13,240	4,632	7,771	2,008	1,871	759	272
	비율 100.0	43.3	15.2	25.4	6.6	6.1	2.5	0.9
인천	사업체 수 3,227	1,313	615	866	198	154	58	23
	비율 100.0	40.7	19.1	26.8	6.1	4.8	1.8	0.7
비중(인천/전국)	10.6	9.9	13.3	11.1	9.9	8.2	7.6	8.5

이에 인천시는 뿌리산업의 고도화, 희소금속 고순도화,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뿌리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고용 안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뿌리산업 도약, 더 좋은 내일’**  
**-고용안정 선제 대응 ... 2020부터 5년간 477억 투입, 7,750명 일자리 창출 목표**

‘뿌리산업 도약, 더 좋은 내일’은 2020년 선정된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뿌리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 3차 년도인 올해는 기존 뿌리산업 업종 6개에 신소재첨단 8개 업종을 추가해 14종으로 지원 업종을 확대하고 기업위주 지원에서 위 기근로자 지원으로 전환한다. 사업 추진체계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 소화하고 기초센터 기능과 프로그램도 강화한다.

△자생적 뿌리산업 생태계 조성 △신규고용창출여건 마련 △안정적 직업 확보 사업 등에 총 71억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1,336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고용창출 1,400명을 목표로 했던 지난해에는 목표대비 116.1%(1,626 명)성과를 이뤄냈다.

이와 함께 시는 뿌리산업 명장의 숙련기술을 디지털화해 뿌리기술의 체계적인 전승시스템을 구축하는 ‘디지털뿌리명장 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와 전문 인력 부족으로 한계를 보이는 뿌리산업의 지속가 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조·용접·표면처리 뿌리명 장을 선발하고 숙련기술을 디지털 기록물 형태로 추적해 기술 승계의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센터는 뿌리기업의 현장 애로사항과 생산 공정의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산학협력 기술을 지원하고 현장 맞춤형 교육체계도 마련 한다.

## ‘22년 하반기,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개소 - 실증화 지원·원천기술 내재화·국제협력지원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체의 기술력 강화를 위한 핵심 거점인 소 부장 실증화 지원센터가 올 하반기 개소한다.

‘원자재-중간재-완제품’의 생산구조에서 ‘중간재’에 해당하는 소 부장은 완제품 시장의 승패를 가르는 ‘게임체인저’ 역할을 한다.

2019년 기준, 소부장은 전체 제조업 생산액(1,553조 원)중 51%(796조 원)를 차지할 정도로 제조업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을 견인하고 있다.

같은 해 기준 인천지역 소부장산업 사업체는 2,138개사로 전국 2만 8,908개사 중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종사자는 8만4,083명으로 전국 (1,422,397명)대비 5.9%, 생산액은 31조976억 원으로 전국(841조704억) 대비 3.7%에 머물렀다.

인천시는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와 기술 국산화를 목표로 2020 년부터 소부장 실증화 지원센터 구축 사업을 추진해 왔다.

센터는 남동 산단내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비롯해 신규 기술 실증화를 지원해 상용화를 돕는 것은 물론 원천기술 개발, 국제협력 지원, 기업 맞춤형 해외기술 도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산업의 비타민, ‘희소금속’

- 기업의 희소금속 기술개발, 소재화, 제품화 지원하는 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인천 유일
- 희소금속 고순도화 실증기반 조성사업에 115억 원 투입

인천시는 희소금속산업 육성을 위해 희소금속 고순도화 실증기반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인듐, 갈륨, 희토류 등 35종을 총칭하는 희소금속(rare metal)은 반도체와 2차전지 같은 첨단산업의 원자재로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소재지만 전 세계적으로 매장량이 극히 제한돼있다.

수요가 늘면서 몸값이 높아지는 추세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수입 의존도가 높아 제조업 부가가치가 유출되고, 불안한 국제정세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해결책이 시급하다.

희소금속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마련한지 않고서는 신성장 동력산업의 지속 성장이 불가능한 상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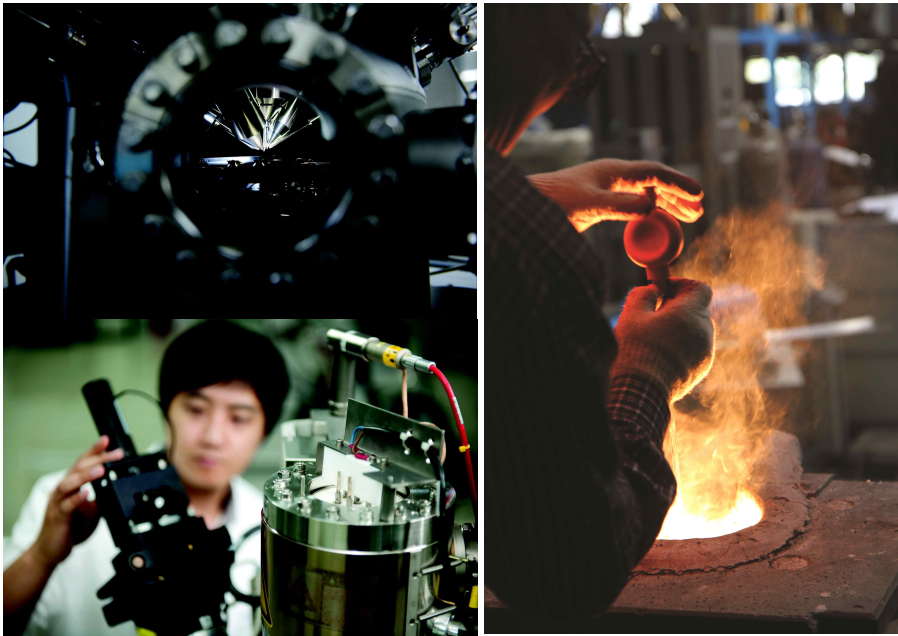
이에 인천시는 산업통산자원부와 함께 희소금속산업 육성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천지역 희소금속업체 R&D를 지원하는 ‘희소금속 고순도화 실증기반 조성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다.

시는 남동구 마크원지식산업센터 6층에 입주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희소금속산업기술센터에 희소금속 고순도화 시생산을 위한 장비를 마련하고 관련 기술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희토류 및 고용점·고활성 희소금속 고순도화에 대한 실증기반을 구축해 기업 사용화 기술지원과 인증체계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

시는 희소금속 가치사슬(구매·생산·물류·경영지원·판매) 강화를 통해 미·중 희토류 분쟁, 일본의 수출 규제 등 고순도 희소금속 원료, 소재 관련 이슈에 독립적인 산업 체계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붙임> 관련 이미지



〈뿌리기술 연구소〉



6·1 지방선거에서 최소금속 산업기반 구축과 뿌리 산업을 공약했던 유정복 인천시장이 취임 사흘 전(6월28일) 남동공단 소재의 뿌리기업, (주) 한라캐스트에 방문해 생산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